

문제1.

공감이란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는 공감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공감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아이히만에게 있어 공감적 태도는 유대인이 당시에 가지고 있을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받아들이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심지어는 국가적 명령이 유대인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히만의 증언은 공감적 태도의 결여를 보여준다.

반면에 제시문(나)의 시적화자는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터 속 비둘기는 포스터에 갇혀 본래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시적화자는 비둘기의 습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공감하고 받아들인다. 비둘기가 노닐던 지붕마루의 쓸쓸함을 알고 마셔볼 공기와 날아갈 하늘이 없다는 비둘기에 대해 안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화자의 표현은 이를 뒷받침한다.

제시문(다) 역시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공감적 태도를 보인다. 뤼카온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관하여 아킬레우스는 나 또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며 뤼카온에게 일부 공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다)의 뤼카온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공감의 방식은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뤼카온의 죽음의 공포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뤼카온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킬레우스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감정에서는 공감을 보이지만 정작 뤼카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중심에서 공감했다면 뤼카온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죽음으로 대우했다. 즉 아킬레우스는 진정한 공감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2.

공감이란 단순히 타자의 상태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러한 감정적 공감이 직접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상은 공감을 유발하는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상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정신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감이란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 타자에게 존재하는 감정과 상태를 상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라)에서 워딩턴은 살의를 품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는 것 처럼 타자 또한 용서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통해 공감에 한발 짝 다가갈 수 있었다.

상상을 통해 공감의 시발점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주체적 공감이 필요하다. 주체란 타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행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이 단순히 타자의 이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제시문(가)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이 공감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증인의 말대로 아무리 선량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체성의 결여는 공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시문(다)의 역시 마찬가지로 아킬레우스가 공감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한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상을 통해 공감을 하고 주체를 통해 공감을 직접적 행위로 행했을지라도 폭력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공감의 행위로 이어져서는 않된다. 폭력이란 남에게 물리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공감의 행위가 이와같은 폭력적 행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라)에서 워딩턴은 마음속에서 복수, 분노와 같은 폭력적 행위를 상상하였다. 만약 이러한 폭력적 분노 복수가 행위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진정한 공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워딩턴은 폭력 대신 용서의 행위를 통해 공감을 보인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각을 뛰어넘는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